청소년 하위문화에 나타난 대중음악과 복식에 대한 연구

-197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원주전문대학 의상과
조교수 엄 소 희

目 次

Ⅰ. 서 론
Ⅱ. 청소년 하위문화와 대중음악
Ⅲ. 한국 청소년 하위집단의 대중음악과 복식
Ⅳ. 90년대 국내 패션에 수용된 대중음악적 경향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Ⅰ. 서 론

문화를 한 집단의 생활 양식이라고 할 때 청소년 문화는 청소년들의 생활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사회의 하위문화로서의 청소년 문화의 존재에 대해서는 상반된 인식이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로 청소년 집단은 성인 집단과 구별되는 자신들 특유의 정체성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는 흔히 그들의 옷차림이나 머리모양, 말투, 문화적 취향 등을 통해 표현된다. 또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한 최근 여러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1] 청소년 집단은 소속학교, 계층, 성, 지역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정체성을 가진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결코 단일한 집단으로 볼 수 없다. 즉, 청소년집단은 성인집단에 대해 차별적인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내부에는 계층과 연령, 성별에 따른 다양한 하위집단이 존재하며 그들은 문화적으로도 공통된 특성과 차별성을 함께 드러낼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10대 청소년들은 과도한 학과 공부와 입시준비에 시달리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95년 문민정부가 공포한 획기적 교육 개선책에 희망을 걸어보긴 하지만 현재까지 청소년들의 평일 생활 시간대를 살펴보면 한국 청소년들에게 텔레비젼을 시청하는 시간외에 사실상 여가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2] 한국 청소년 문화의 성격은 이와 같은 생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에서의 생활과 수업, 그리고 또래집단과의 관계가 청소년 문화를 조건 지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청소년 문화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삶의 조건에 의해 규정된다. 텔레비젼의 가요 프로그램을 보면

1) 이용숙(1992 : 16), 강명구(1992 : 27), 남재일(1994 : 48~49)등 논문에서 청소년 집단의 성격을 계급 개념과 연관하여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 김창남, "하위문화집단의 대중문화 실천에 대한 일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4, pp.65~67

오늘날 주류적인 대중가요의 가장 열광적인 수용층은 청소년층임을 알수 있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대략 80년대 부터 대중가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90년대로 넘어 오면서 그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되고 그 연령층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뉴키즈 소동이나 서태지 열풍으로 상징되는 우리사회의 청소년 문화의 열기는 분출구를 찾지 못하는 그들의 삶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그것은 '60년대 그들의 부모 세대가 클리프 리차드라는 영국의 가수앞에서 분출했던 청춘으로서의 감당할 수 없는 생명력과도 같은 것일 수 있으며, 이미 그 이전부터 가시화 되었던 전 세계적인 대중문화의 동질화 현상이 우리 사회의 두드러진 문화의 한 양태로 자리잡고 있는 증거일 수 있다.

청소년들의 복식과 음악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의 조건이 강제하는 모순으로부터 도피하거나 이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기제로써 청소년 하위문화의 상징적 표상행위가 된다. 서구의 경우, 청소년 하위문화는 그들 스스로 독특한 음악스타일이나 의복스타일을 개발하여 상징적 저항의 수단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서구사회의 청소년들과는 여러모로 삶의 조건이 다를 수 밖에 없는 한국의 청소년 문화의 경우는 이와 다르리라 생각된다.

현재까지 한국의 패션에 대한 논의는 구미의 패션문화이론의 프리즘으로 한국의 문화현실을 분석하는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여 왔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한국 청소년의 패션수용의 현실을 분석하고 그들에게로 패션이 확산되는 구체적인 모습을 끌어내기 위해 집중적으로 연구주제로 삼고자 하는 것은 대중음악이다. 대중음악은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가장 보편적인 문화이며 특히 다른 문화와 달리 대중이 직접 행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하위문화적 양상이 다른 어떤 장르에 비해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하위 문화에 대한 연구에서 대중음악은 가장 중심적인 연구주제 가운데 하나[3]였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중음악과 청소년 하위문화와의 관련성 그리고 한국 청소년들의 대중 문화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 대중음악과 그들의 복식을 살펴봄으로써 대중음악적 이미지가 현대 패션의 확산과정에 어떠한 감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함이다. 그것은 또한 확산 이론에 의한 하위문화집단의 패션 전파 양상을 설명해 주게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가 연구범위를 70년대 이후로 광범위하게 제시한 것은 청소년 하위문화의 패션 확산 과정과 관련되어지는 수용태도의 시대적 변화를 대략적으로나마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차후 년도를 세분화시킨 구체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하위문화 집단들의 대중음악적 이미지의 수용과정에 나타나는 다양한 패션을 분석하기 위해 본 논문은 신문, 잡지, 사진집 등의 1차적 자료와 패션을 포함한 사회학, 문화사, 음악사 등의 기타 관련서적, 논문 등의 2차적 자료등에 근거를 두어 연구하였다.

Ⅱ. 청소년 하위 문화와 대중음악

청소년들의 하위문화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경제적 모순에 대한 주술적 해결의 방식이다. 즉 현실적으로는 빈곤이나 실업을 해결할 수 없는 청소년들이 상징적 표상행위를 통해 현실의 모순으로 부터 회피하거나 벗어나고자 하며 이러한 청소년들의 감정 및 정서가 하위문화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스타일의 추구로 나타난다[4]는 것이

3) 코헨은 하위문화 스타일이 구현되는 가장 중요한 문화 양식으로 의상, 의식(ritual), 은어(argot)와 음악을 들고 있다. (Cohen, 1972)

4) Lynne Richards, "The Appearance of Youthful Subculture", CTRJ V6#3, 1988, p.59.

다. 그렇게 독특한 하위문화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수단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대중음악이라 할 수 있다.

제임스 콜먼(James Coleman)이 1961에 실시했던 미국 청소년들에 대한 방대한 조사는 음악이 그들에게 가장 인기있던 형태의 오락이고 로큰롤이 가장 인기있던 형태의 음악이라는 것을 확인했다.[5]

그로스버그(Grossberg)는 '정서'가 특히 음악과 관련하여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음을 지적[6]하였는데 음악의 효과는 감정의 범주만이 아니라 행위(activation)의 범주, 이를테면 육체적 흥분(excitement)이나 해소(relaxation) 같은 것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학자에 따르면 음악은 또래 집단 구조의 한 측면을 보여준다. 청소년들은 바로 또래집단 속에서 그들의 개인적인 감정들을 공적으로 다루는 법을 배우고 음악을 상징과 배경으로, 즉 감정을 확인하고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7]

젊은이들의 삶에서 음악의 중요성은 청년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대중음악에 대한 10대들의 관심은 그들이 시청하는 TV프로그램, 그들이 읽는 잡지, 그들이 가는 카페와 댄스클럽, 그들이 소유하려고 노력하는 '필수적인 도구'(의복, 용품 등)들을 결정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다시말하면, 젊은이들의 가치와 젊은이들이 그들 자신을 기호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음악의 형태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수 있다. 중요한 문제는 그 스타일들을 해독하는 것이다.

이러한 적용을 보여주는 예로서 챔버스(Chambers)는 흑인음악이 다른 백인 청소년들의 음악으로 수용되었을때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가를 분석[8]하였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흑인 음악의 형식이 초기의 블루스(Blues)양식에서 리듬앤 블루스(Rhythm & Blues)로, 다시 로큰롤(Rocke'n roll)양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은 흑인들이 억압적인 삶을 살면서 생존해온 경험을 반영하며 역으로 백인들이 흑인 하위문화의 정치적 저항성을 제거시키고 편입시켜온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즉, 흑인음악과 인종적 계급적 모순이 중첩된 흑인들의 고통과 체험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백인들에 의한 흑인 음악의 수용은 단지 피상적일 수 밖에 없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흑인음악이 원래의 고유한 맥락에서 단절되기 시작하면서 음악은 단지 양식적인 분류의 측면이 된다. 예컨대 1960년대 영국의 백인 스킨헤드족(Skinhead)들은 흑인음악의 '흑인의 자존심'을 담은 가사를 바꾸어 '백인의 자존심'을 노래부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흑인음악에는 영국 노동계급 청소년 하위문화의 갈등과 긴장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주는 대항적 가치가 내재[9]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 그로스버그가 지적했듯이 음악과 관련한 '정서'의 개념은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서구 청소년들과 대중음악과 스타일과의 관계는 그야말로 그들의 내면 가치를 기호화한 상동성(homology)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청소년 문화가 꽃핀 1950년대 이후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에 걸쳐 런던을 비롯하여 뉴

5) Simon Frith(1983), 「The Sociology of Rock」, 권영성, 김공수 (역), 「사운드의 힘」, 서울 : 한나래, 1995, p.258.

6) Grossberg, L., "Rock and Roll in Search of an Audience", Lull, (2nded), Popular Music and Communication, SAGE, 1992, pp.162~165.

7) Simon Frith, p.274.

8) Chambers, I., "A strategy for Living", Hall & Jefferson(eds), Resistance Through Rituals, CCCS, Univ. of Birmingham, 1976, pp.152~62

9) Ibid., pp.164~166

육, 파리 등지에서 발생한 청소년 문화는 반문화적 성격의 문화혁명으로서 구체화 되었으며 그 문화의 형성배경은 대중음악이었다. 이러한 대중음악적 영향은 많은 反 모우드 스타일, 즉 50년대의 테디보이(Teddy Boys), 60년대의 모즈(Mods), 스킨헤드(Skinheads), 히피(Hippie) 그리고 70년대의 펑크(Punks)등 일련의 하위문화 스타일의 등장에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10]

그중 한 예로서 76년 경에 출연한 백인 청소년들의 저항적 하위문화였던 펑크족(Punks)들은 요란한 머리모양과 색깔, 속박과 구속을 상징하는 의상 등 충격적인 스타일을 통해 기존 사회에 대한 저항심리를 표현했는데 이들은 펑크록(Punk Rock)이라는 음악을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음악으로 삼았고 펑크족이라는 이름도 펑크록(Punk Rock)에서 딴것이었다.[11] 이것은 60, 70년대 미국과 영국의 서인도 출신 청소년들 사이에 널리 확산되었던 라스타파리안(Rastafarian) 운동의 추종자들이 레게음악을 노래부르면서 집단 정체성을 표현했던 것과 같은 선상이며 이러한 레게음악과 라스타파리안의 하위문화적 스타일은 펑크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12] 펑크 스타일은 일자리도 미래에 대한 전망도 주지못하는 기성세대에 대한 젊은이들의 거부의 표현으로써 여기서 펑크록은 가장 중요한 저항적 하위문화의 기능을 수행했다. 헵디지(Hebdige)는 이러한 저항이 규제 혹은 지배에 대해 인간적 자유와 창조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우리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러한 저항이 지배적인 매스미디어 혹은 문화사업의 도움으로 상품화되어 대중에게 확산되고 있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서구에서 문화사업은 청소년 하위문화의 차원에서 상징적 저항의 수단으로서 자생된 다양한 하위문화의 요소들을 끊임없이 받아들여 상품화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위문화의 스타일은 하위집단의 범주를 넘어 엘리트의 지배적 문화로 상향 전파(Tricle-up)되는 확산 현상을 보여준다. 이렇게 하위문화의 경험을 반영하는 스타일이 문화사업에 의해 대중화될 때 하위문화가 처음에 지녔던 저항적,의식적 의미는 사라지거나 약화되면서 결국 대중적 문화로 통합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13] 레게나 펑크록 뿐만아니라 대중 청소년 시장을 주도하는 청소년 취향의 스타일은 대부분 그런 과정을 통해 확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Ⅲ. 한국 청소년 하위집단의 대중음악과 복식

한국 대중음악의 갈래는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트로트 가요를 비롯하여 이지리스닝 가요및 팝발라드, 포크가요, 록과 헤비메탈, 댄스음악 그리고 민중가요로 분류된다. 한국에서 청년문화가 시작된 1970년대 이후 한국 대중음악의 변천과정에 대한 대략적 기술을 통해 수용층이 청소년층인 대중음악과 복식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70년대

70년대 초반의 국내 대중문화는 60년대 부터 구미를 휩쓴 서구 청년 문화의 영향속에 이른 바 신세대 청년 문화가 가장 눈에 띄는 양상으로 등장하였다. 흔히 장발과 통키타, 청바지, 생맥주 등으로 상징되던 이 청년문화는 포크음악이 한국의 청년층을 사로잡으면서 이른바 통키타 가요의 선풍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60년대 초반 미8군 부대에서 활동한 일부 음악인들에 의해 도입된 록 음악

10) 엄소희, "Punk Fashion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p.6~7.
11) Douglas A Russell, Costume History and style, New Jersey : Englewood Cliffs & Co Inc., 1983. p.513
12) Hebdige, d., Subculture : The Meaning of style, London : Methuen and Co. 1979, pp.35~38
13) 김창남, pp.31~32.

은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이르러 대중적인 장르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14]

포크가요는 노래에서만이 아니라 가수들의 스타일에서도 기존의 성인 가요와는 차이를 보여주었다. 화려한 의상과 스타일로 청중들과 스스로를 구별 시켰던 성인 가수들과 달리 포크 가수들은 무대에서 악단반주를 거부하고 화장을 않고 의상도 평상복이나 청바지 차림에 기타하나를 들고 노래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스타일 자체가 기성의 성인문화를 거부하고 그와 대립하는 그들 특유의 문화적 일체감을 추구하던 당시 청년문화의 정체성을 표현해주는 것이기도 하였으나 사실 이러한 청년문화의 붐은 서양을 동경하는 미국식 자유주의에 대한 모방으로서의 영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이 시기에는 청년문화에 대한 권력층의 사시와 장발 등 풍속에 대한 단속 등으로 록 장르는 발전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유신체제하에 75년 대마초를 피운 연예인들이 대거 구속되었고, 60년대 말 가수 윤복희에 의해 국내에 소개된 미니스커트가 70년대초 선풍적 인기를 얻으면서(그림 1), 서구 대중 가수들의 패션을 모방한 당시 청년들의 미니스커트, 히피족, 장발 스타일이 퇴폐풍조라 하여 단속의 대상이 되었다. 71년 10월에는 퇴폐풍조 일제 단속에 나서 하루에만 히피성 장발족 1174명과 보디페인팅 8명을 적발하는 한편, 방송 윤리위원회는 히피풍의 텔레비젼 출현을 규제하기로 결의하기도 하였다.[15] 또, 79년 2월에는 퇴폐풍조를 없애기 위해 '핫팬츠와 여가수들의 앞가슴 노출 드레스, 남자의 마고자 차림과 장발'등을 규제하도록 했다.[16] (그림 2)는 국내 록 그룹의 선두주자인 신중현의 모습으로, 그 당시 록 가수들은 서구 록 가수들에 심취해 있었으나 퇴폐풍조 단속때문에 복식과 외모에 있어서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유신정권의 파시스트적 통치는 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운동권 가요를 성립시켰고 이것은 대학을 중심으로 지식인들과 노동자들에게 빠르게 보급되어갔다.

이와같이 70년대는 서구 대중음악적 영향으로 국내에 젊은이들의 문화가 태동된 시기인 동시에 청년문화의 수난기이기도 했던 것이다. 민중가요와 같은 이러한 대중음악은 한국의 경우에도 자생

(그림 1) 70년대 초 미니선풍, 월간 멋, 86. 12.

(그림 2) 신중현과 지미 헨드릭스, 1970년대, 신중현과 아름다운 강산

14) 신중현의 록 그룹 애드포를 선두로 키보이스(Key Boys), 히식스(He Six), 영 사운드(Young Sound)등이 초창기 대표적인 록 그룹이다. (선성원, 1993 참조)

15) 「동아일보」, 1971년 10월 1일, p.7

16) 「조선일보」, 1979년 2월 25일

적 하위문화로써 저항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음악 문화가 존재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
이라 하겠으나 한국의 특정한 환경은 그것을 자생적 하위문화 스타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외국의 문화나 지배적인 문화의 관행속으로 통합되어 버리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국내 청년문화는 TV를 통해 소개되는 서구 풍조가 대중에게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면서 획일적인 음악과 패션을 추종함으로써 그 역기능에 대한 비판이 뒤따르지 않을 수 없었던 시기였다.

2. 80년대

80년대 대중음악 문화에서 가장 획기적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주요 수용층이 10대 청소년층으로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80년대의 대중가요는 대부분 이들 10대 청소년을 겨냥해 제작되게 되는데 이들의 감각적 성향에 맞춘 발라드가 전성기를 구가하게 된다. 이는 주로 강한 비트와 빠른 템포를 가진 댄스 발라드, 록 발라드, 로맨틱하고 감각적인 성향의 팝 발라드, 포크 발라드 등으로 분류되어 1990년대까지 유행이 계속된다.[17]

80년대 초 컬러 텔레비전 방송의 시작은 TV방송 프로그램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는데 특히 쇼 프로그램의 경우 전반적으로 화려하고 대형화된 버라이어티 쇼가 주류를 이루게 된다. 이른바 비디오형 가수가 등장하고 TV화면에 비치는 화려한 율동과 춤, 의상, 가수의 용모와 스타일 등은 특히 10대 청소년들에게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전시대에 비해 가수들의 화려하고 독특한 패션 스타일은 청소년들의 패션 확산에 더욱 큰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80년대 들어서면서는 전자악기가 일반화되면서 록 사운드는 거의 모든 대중가요 장르에 확산되었고 80년대 중반에는 강한 비트와 사운드를 특징으로 하는 하드록 혹은 헤비메탈 음악이 등장하여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게 된다.[18]

이들 언더 그라운드 록음악은 전 세대의 록음악

(그림 3) 서구 80년대 록커 Steve Harris, 뮤직라이프, 86. 9.

(그림 4) 국내 록 그룹 시나위, 뮤직라이프, 87. 5.

17) 김영준, 「한국 가요사 이야기」, 서울 : 아름출판사, 1994 p.593
18) 이 시기에 청소년층의 열광적인 인기를 모은 대표적인 록 그룹들은 '들국화'를 비롯해, 블루스 계통의 음악을 추구하는 '신촌블루스' 포크록을 주로 연주하는 '동물원', 헤비메탈의 음악적 경향을 가진 '백두산', '시나위' 등이 있다. (김창남, p.55)

그룹과는 여러모로 다른 특성을 보여준다. 이들은 대체로 전자 악기의 변형음과 높은 출력의 고음향, 장발의 어수선한 긴 머리카락과 가죽의상, 금속 악세사리, 찢어진 청바지 등 서구 헤비메탈 그룹의 펑크적 스타일을 보여주는 록의 세계주의적 경향을 갖는다[19](그림 3, 4). 그러나 헤비메탈은 한국적인 취향으로 재창조 되지 못한채 외국의 시청각적인 요소들을 답습함으로서 일반적인 지지기반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이들은 대체로 팝음악이 본격적으로 소개되는 70년대와 80년대에 청소년기를 보낸 세대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이들의 음악과 복식은 80년대 이후의 청소년 세대에 일종의 반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80년대 청소년들의 패션은 주로 TV가수들의 복식 양식이 젊은 집단에 그대로 수용되어진 경우가 많다. 70년대 말 존 트라볼타(John Travolta)의 「토요일밤의 열기」로 인해 불었던 디스코(Disco) 열기는 82년 전후하여 배기(baggy)형 7부바지인 일명 「디스코 바지」를 유행시켰고,[20] 83년에는 영화「플래시 댄스」의 주제가와 함께 여주인공의 큼직한 T셔츠나 스웨터의 빅 루스룩(big loose look)과 펜슬 실루엣(pensile silhouette)의 가는 바지, 그리고 레그워머의 붐을 불러 일으켰다.[21] 이러한 무드는 국내에도 전해져 80년대에는 인기 연예인들의 패션이 인기의 한 요소로 작용할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나미의 뉴웨이브(New Wave)곡인 「빙글 빙글」이 특이한 율동과 헤어스타일 등으로 인기를 모았고, 전영록, 조용필, 김종훈, 김수철 등 젊은 남자가수들이 82년경 미국, 일본 등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던 새로운 유니섹스 패션을 받아들였고(그림 5) 어필하기 시작하면서 청소년층에 대중화[22] 되기도 하였다. 미폴러, 가는 넥타이, 약간은 풍성한 의상에 핑컬 퍼머 헤어스타일 등이 특징인 이 유니섹스 패션은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84년경 청소년들 사이에 똑같은 퍼머머리형에 유니섹스 차림을 한 속칭 '한국형 펑크족(Punks)'들이 등장하기도 하였다[23](그림 6). 또한 85년 미국가수 「마돈나」(Madona)

(그림 5) 조용필의 유니섹스 패션
뮤직라이프, 84. 3.

(그림 6) 유니섹스 스타일의 한국형 펑크족,
동아일보, 84. 10. 10.

19) Ibid., pp.55~56
20) "짧은 바지가 늘고 있다", 「조선일보」, 1982년 4월 10일, p.6
21) "너도 나도 플래시댄스 패션", 「조선일보」, 1984년 2월 5일, p.6
22) 「뮤직라이프」, 1983년. 3월., p.66.
23) "한국형 펑크족 늘고있다", 「동아일보」, 1984년 10월 10일, p.7

스타일이 유행하자 이를 모방한 김완선이 등장하여 화려한 색상과 패션 스타일로 청소년들에게 패션의 다양한 코디감각을 전달하였다.

TV가수들의 복식 양식이 청소년 집단에 복제되는 이러한 현상은 80년대에 새로운 패션 집단으로 등장한 청소년들이 그들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한 정보 수집과정에서 TV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것이 청소년 복식의 특징인 복제된 패션의 추구로 나타나는 것이라 보여진다. 이와같이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유행에의 동시추구와 함께 차별화를 추구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주체적인 패션을 연출하는데 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태로 유행에 있어 위로부터의 확산은 계속되었다. 서구의 청소년 하위문화가 그들 스스로 자생된 하위문화 스타일을 창조해내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며 그것은 한국 청소년들의 여건과도 무관하지 않다 하겠다.

3. 90년대

90년대에 나타난 전세계적 현상으로는 10년전까지만 해도 30세 나이였던 통키타를 걸친 베이비부머들(Baby Boomers)의 시절이 퇴조하고 음악계에 청소년층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최근 대중음악계의 동향이 록(Rock)에서 랩(Rap)[24] 또는 힙합(Hip-Hop)[25]으로, 힙합에서 다시 레게로 변화하고 있음에서 더욱 뚜렷이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복고붐을 타고 있는 90년대 음악계의 유행 추세는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으로써 얼터너티브 음악(Alternative music)이 대두되어 6~70년대의 펑크록과 사이키델릭 사운드, 80년대의 댄스리듬과 흑인의 리듬앤 블루스, 또는 메틀에 랩까지 가미시킴으로써 더욱 다양한 음악적 장르를 보여주고 있다.

94년도 세계 대중음악계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현상 가운데 하나는 댄스음악으로서 레게[26]의 급부상이었다. 유럽과 미국은 물론,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레게 선풍이 음악계를 석권함으로써 이루어졌다.[27] 80년대 중반에 대중가요의 주류적 흐름으로 등장한 댄스음악은 92년도 '서태지와 아이들'의 랩음악 〈난 알아요〉의 히트로 연결되었다(그림 7). 다시 94년도 김건모의 레게음악 〈핑계〉가 두각을 나타내면서 투투, 룰라, 닥터레게 등의 레게 그룹들이 대거 출연하였고 그것은 가요의 물줄기를 랩에서 레게로 변화시켰다. 그러나 최근 레게 히트곡은 오리지널 레게 음악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댄스풍 레게 음악으로서 레게가 댄스화로 치닫게 된데는 랩 또는 힙합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이러한 현상은 '힙합 레게'를 90년대의 신레게 음악으로 자리를 굳히게 하였다.[28] 힙합 레게는 테크노 음악이라는 새로운 경향에 힘입은 경쾌한 댄스음악으로 청소년층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고 있으며 흔히 신세대 문화를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청소년의 우상인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과 함께 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신세대 음악은 그들 특유의 자유분방함과 당당함으로

24) 랩음악은 1980년대 초반 뉴욕의 브롱크스에서 하층의 흑인 청소년들이 춤을 추며 사회에 대한 불만을 담아 빠르게 지껄이던 말투로 부터 유래한 대중음악 장르이다. 한국에는 90년대 초부터 소개되기 시작하여 92년 '서태지와 아이들'의 음반이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면서 대중화되었다.

25) 1980년대 대표적인 문화동향으로 뉴욕 브롱크스(Bronx) 지역에서 발생하여 순식간에 세계적으로 확산된 거리문화이다. 브레이크 댄스, 스크래치 DJ(레코드를 손으로 역회전 시키거나 일부러 소음을 넣거나 하는 디스크 자키), 랩뮤직, 그래피티 아트(서투른 감각의 낙서 예술) 등의 특징을 갖는다.

26) 미국과 영국의 서인도 출신 청소년들 사이에 널리 확산되었던 라스타파리안(Rastafarian) 운동의 추종자들이 아프리카로의 복귀를 주장하며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였던 거리음악이다.

27) 「음악동아」, 1994년 12월, p.107

28) Ibid, pp.107~109.

(그림 7) 힙합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뮤직라이프, 92. 9.

(그림 8) 패션상가의 서태지 패션
중앙일보, 92. 8. 15.

(그림 9) 힙합 패션,
Fashion Today, 94. 6.

욕구의 분출통로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중음악 경향은 청소년들의 유행패션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 레게 또는 힙합스타일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92년도에는 힙합스타일의 「서태지 패션」이 등장하여 티셔츠 등 웃옷 위에 겹쳐입는 헐렁한 소매없는 옷과 칠부정도 길이의 폭넓은 반바지, 일부 찢어진 청바지에 운동화 그리고 벙거지 스타일이나 챙이 넓은 스타일의 모자 또는 운동모 등과 목걸이, 팔찌 등으로 10대 청소년에서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널리 유행하였다(그림 8).

그외에도 힙합 패션은 힙합스타일의 특징인 넉넉함으로 구속과 억압을 싫어하는 기호에 맞춘 헐렁한 진캐쥬얼이나 미드리프 또는 힙랩(스웨터 등을 허리부위에 매어입는 스타일) 그리고 군화나 앵글부츠를 착용하며 액세서리로 힙본벨트, 베레모나 등에 메는 가방(Back-Sack), 캡(Cap), 머플러 등을 연출하며 신세대풍의 골드와 실버의 컬러풀한 컬러를 가미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그림 9). 또한 자메이카의 흑인스타일을 강조하는 레게패션은 라스타파리안의 의식이 상징하는 에쓰닉한 무드로서 레드, 그린, 골드 등 중세적 이미지가 가미된 Color, 이디오피아형 모자나 두건, 서인도식 민속복이 변형한 T셔츠, 헐렁한 버뮤다 스타일의 반바지나 합본 스타일의 찢어진 진바지 또한 피부색을 인위적으로 검게 선탠하는 것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10, 11).

이러한 스타일은 소위 '크로스오버(crossover)'의 의미로 확대되고 있는 최근 얼터너티브 음악의

29) "서태지 패션 청소년층에 급속 확산", 「중앙일보」 1992년 8월 15일.

(그림 10) 레게 선풍을 일으킨 그룹 '룰라', GIMV, 95. 5.

(그림 11) 레게 스타일, Fashion Today, 94. 6

경향과 마찬가지로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자유롭게 서로 복합되어진 힙합 레게 스타일이 유행하고 있다.

한국에 청소년 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대두시킨 92년도 뉴키즈 내한공연 당시, 싱어와 똑같은 모자에 뉴키즈라 새겨진 티셔츠를 갖춰입고 열광하던 10대 청소년들의 모습은 분출구를 찾지 못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현실이 스타에 대한 무조건적 동경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12). 이와 같이 한국 청소년들은 지배적인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대중문화 속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며 그 문화를 선택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하위문화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대중음악은 미국을 중심으로한 세계적 동향을 일부 받아들여 느끼고 소화한 것으로 음악의 특징적 스타일이나 유행시기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대중문화의 동질화 현상과 함께 90년대 대중음악의 장르는 민속음악에서 현대 음악화된 퓨전재즈, 80년대 리바이벌되어 90년대 인기절정을 누리고 있는 컨트리 음악, 90년대 사이키델릭 음악과 펑크 록을 동시에 보여주는 얼터너티브 록, 복고의 열기로 비롯된 미국 할렘문화의 랩 음악과 레게 음악 등이 유행하고 있다. 이러한 음악적 경향은 패션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러한 경향은 국내 청소년들의 복식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그림 12) 뉴키즈 공연의 청소년들
뮤직라이프, 92. 3.

〈표 1〉 한국 대중가요 및 패션의 변화과정

구 분	해방후~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대중음악의 장르별 특 징	분단정서 내면화 및 기층 대중문화로서의 정착 이지리스닝 가요 미국 대중음악의 유입과 이지리스닝 가요의 정착	트로트가요 양식적인 변화와 팝트로트의 등장 포크가요 청년문화로서의 포크	성인문화로서의 트로트 가요 팝 발라드 청소년층의 부상과 팝발라드의 정착 포크의 좌절과 언더그라운드 가요 등장 민중가요 운동권 가요문화 정착 진보적 노래운동의 전개와 민중가요의 대중화 록과 헤비메탈 록의 등장과 록사운드의 일반화 댄스음악 댄스음악의 등장과 장르로서의 정립	언더그라운드 가요로서의 록 랩·레게 음악과 신세대 문화
대중음악과 관련된 패션	맘보스타일[30] 아리랑드레스 속눈썹, 후까시, 가발, 미니스커트 유행	미니스커트 장발, 청바지 보디페인팅 핫팬츠 유행 히피족 출현	디스코 스타일 프래시댄스 패션 나미의 헤어스타일 조용필등의 유니 섹스 패션, 마돈나 스타일 펑크 스타일 등 유행	서태지 패션 힙합 스타일 자메이카풍 레게 스타일 힙합 레게 패션 등
특 징	○신여성 가수들의 패션모방 ○외국의 무조건적 모방으로 사치 조장	○TV를 통한 서구풍조의 무비판적 수용 ○획일적인 음악과 패션 추종	○TV가수 스타일의 복제된 패션과 함께 유행에의 동시추구 현상	○서구 대중문화의 무조건적 모방에서 탈피 ○주체적 패션 강조하는 측면으로 이동

30) 소설 '자유부인'(정비석 作)의 주인공을 춤바람나게 했던 음악 맘보(Mambo)는 '자유문화의 상징물'처럼 여겨지며 50년대말~60년대초, '맘보바지'로 대표되는 유행을 낳았다. 또한 60년대초 서구식 드레스와 한복의 모양을 절충한 무대의상, 아리랑 드레스가 유행하였다.

Ⅳ. 90년대 국내 패션에 수용된 대중 음악적 경향

90년대 국내 패션에 수용된 대중음악의 장르에 따른 패션 이미지는 재즈 이미지, 컨트리 이미지, 록 이미지, 힙합 레게 이미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재즈 이미지(Jazz Image)

수 세기에 걸쳐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던 몇 가지의 음악적 문화가 서로 융합하여 이루어진 재즈는 20C초 미국의 뉴올리언스를 중심으로 미국 전역에 확산되었다.[31] 이것은 단순한 음악으로서가 아닌 재즈의 태동시기에 가졌던 사회배경이나 의생활 문화에 대한 향수까지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림 13) 재즈 룩,
중앙일보, 94. 8. 6.

'95 F/W 트랜드 자료들은 모순되는 두가지 개념의 공존을 제시하였는데 과거에 대한 향수와 미래적인 우주의 이미지가 함께 수용되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 트렌드중 과거지향의 노스텔지어(Nostalgia)는 단순히 음악에서 느낄 수 있는 스윙 리듬의 조금은 우울하고 어두운 이미지가 아닌 지난 시절에 대한 향수, 시대를 거슬러 나타나는 온건한 감각과 새롭게 변모하는 현대적인 감각과의 조화를 상징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대중음악의 재즈 이미지가 반영된 90년대 패션으로는 첫째, 20~30년대에 대한 노스텔지어의 영향으로 흑인 재즈 맨들의 재즈 스타일을 여성복으로 도입시킨 복고풍 댄디스타일의 부활을 들 수 있다. 1920년대의 보이쉬 스타일이나 30~40년대의 밀리터리룩, 재즈 댄스 파티에 어울리는 율동적인 짧은 옷길이 등이 현재 복고적인 재즈무드를 타고 유행하고 있다. 테일러드의 다양한 재킷으로 된 여성의 매니쉬 스타일, 몸에 꼭끼는 베스트, 영국의 복고적 느낌을 표현하는 밀리터리풍의 수트, 지난날 재즈 뮤지션들의 의상에서 영향을 얻은 댄디풍의 재즈 룩 등이 그것이다. (그림 13)과 같이 복고적 무드의 재즈 룩은 예전의 정통 맞춤복의 기성복화가 시도되었던 3~4개 버튼의 테일러드 싱글자켓이 특징이며 가급적 디자인 요소를 배재하여 깨끗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강조한다. 소재도 감성적인 여성미와 진취적인 남성미의 이중성을 반영한 지오메트릭한 미니멀리듬 패턴, 스트라이프와 체크가 심플한 댄디풍을 표현한다.

둘째는 식민지에서 느낄 수 있는 인도풍의 에스닉 감각이다. 제3세계 음악에 관심을 갖는 최근의 프리재즈의 영향으로 벨벳, 세틴 등을 이용한 중세적 이미지와 광택나는 자카드 소재, 인도 전통문양에서 모티브를 얻은 화려한 패턴의 소재를 이용한 에스닉 모드가 현대적 감각으로 연출되고 있다.[32]

31) 이장직「대중화 시대의 음악」, 서울 : 삼호출판사, 1990, p.304
32)「중앙일보」, 1994년 8월 6일, p.29.

2. 컨트리 & 웨스턴 이미지 (Country & Western Image)

컨트리 앤 웨스턴은 미국 남부 백인 사회에서 영국에 전해진 민요에 다양한 음악 요소를 덧붙여 만들어졌는데 30년대 인기가수 지미 로저스(Jimmie Rogers)와 진 오트리(Gene Autry)가 서부를 무대로 한 카우보이 송(Cowboy Song)을 확산시켰던데서 유래한다.[33]

(그림 14)는 컨트리 가수 진 오트리의 모습으로 전형적인 카우보이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외 컨트리송 가수들은 무엇보다도 서부의 느낌을 전달해 주는 카우보이 모자, 웨스턴 스타일의 셔츠, 벨트, 타이, 부츠 등 특유의 복식을 통해 컨트리송 가수임을 전달하고 있다.

베이직 아이템으로서 웨스턴 셔츠(Western Shirt), 웨스턴 재킷(Western Jacket), 웨스턴 베스트(Western Best), 웨스턴 팬츠(Western Pants), 웨스턴 벨트(Western Belt), 웨스턴 타이(Westren Tie), 웨스턴 부츠(Western Boots)등과 카우보이 햇(Cowboy Hat), 반다나 스카프(Bandana Scarf) 등이 있다. 디테일이나 액세서리 중 프린지(Fringe)는 웨스턴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트리밍 기법이며, 소재는 주로 야성적인 진이나 가죽 그리고 세무를 사용한다.

이와같이 오랜동안 패션 테마로 등장하여 온 컨트리 앤 웨스턴은 현대 패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독특한 특징을 가진 고유의 아이템과 디테일, 액세서리 등은 거리의 젊은이들 사이에 다양한 코디네이션 아이템으로 즐겨 사용되고 있다 (그림 15).

(그림 14) 컨트리 가수 진 오트리,
컨트리 음악의 역사, 1989.

(그림 15) 카우보이 복장을 한 거리의 청소년,
행복이 가득한 집, 95. 8

33) 서동진, 「Rock－젊음의 반란」, 서울 : 새길, p.29

3. 록 이미지(Rock Image)

90년대에 등장하여 사이키델릭한 록과 펑크 록을 동시에 보여주는 얼터너티브 록의 경향은 패션에 반영되어 히피풍, 에스닉풍, 에콜로지풍, 신 유니섹스풍 그리고 펑크풍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로 히피들이 즐긴 에시드 록은 LSD같은 환각제의 힘을 빌어 신서사이저(Synthesizer : 음악합성장치)와 고출력의 앰프, 제3세계의 전통악기는 물론 전자 악기들을 동원하여 사이키델릭(Psychedelic)한 쇼 무대를 연출하였다[34](그림 16). 또한 70년대 초반 젊은이들의 음악으로서 형성된 펑크 록은 1976년 이후 록과 음악의 양면적인 펑크 스타일을 등장시켰다(그림 21). 이러한 극단적인 변태적인 모습은 현대패션에 여러가지 패션 테마로 등장하여 영향을 주고 있다.

첫째, 90년도 패션에 수용된 에시드 록 이미지는 히피풍의 패션으로 표현되고 있다. 「Fairchild's Dicitonary of Fashion」은 히피풍을 정의하면서 그 영향으로 에스닉 패션과 독특한 의상조합(Unusual mixture of costume)의 경향이 시작되었다고 평가했다.[35]

(그림 16) 에시드 록커 Janis Joplin의 우스드톡 공연, 1969, Getting it 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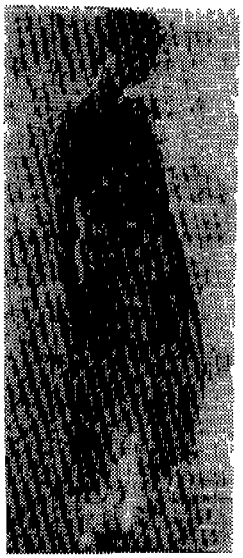
이러한 지적에서 보여지듯 꽉조여진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60년대 히피록커의 이미지는 불안정한 현실에서 정신적인 안정을 얻으려는 현대인들의 취향에 접근하여 히피풍 그런지 패션(Grunge Fashion)으로 표현되고 있다. 요즘 거리의 청소년들은 찢어진 진바지, 겹쳐입는 레이어드룩, 구깃구깃 구겨진듯한 드레스, 길고 주름 많은 치렁한 치마에 워킹부츠(군화)와 색(Sack)차림[36]등이 자유롭게 코디네이트 되어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독특한 레이어링을 유행시키고 있다(그림 17).

둘째, 90년대 패션에 수용된 에시드 록 이미지는 이국풍의 에스닉(ethnic) 패션으로 나타나고 있다. 에스닉은 패션 테마에 있어서 노스텔지아(nostalgia)와 함께 항상 유행의 주된 내용이 되어 왔으므로 히피 패션에 의해서만 파생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다만 에스닉 패션은 히피의 영향을 거치면서 더욱 자유롭게 코디네이트 되어 착용되기 시작하였다. 울과 실크의 이국적인 소재를 사용한 줄무늬의 젤레바(djeilaba), 하렘 팬츠, 텐트 드레스, 라자코트, 네루자켓 그리고 동양풍과 농민 복조의 전통의상을 응용한 카프탄, 풍성하게 드레이프된 스카프, 또한 "벼룩시장 옷(flea market clothes)이라 부른 히피풍의 디테일 등은 일반 뿐만 아니라 오뜨꾸띄르 패션에 널리 표현되어졌으며 집시풍의 패치워크 스커트에 동양풍의 꽃무늬 셔츠(히피셔츠), 자주, 손으로 만든 액세서리, 인디언 프린지, 스카프, 그리고 새쉬 등은 흔히 거리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히피 이미지의 에스닉 패션이다(그림 18).

---

34) "Acid Rock" : 「파퓰러 음악 용어 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 1987, pp.8~10
35) Fairchild's Dicitionary of Fashion, "Hippie"
36) "올가을 구두패션", 「한국일보」, 1993년 8월 16일, p.13

(그림 17) 히피풍 그런지룩, 한국일보, 94. 4. 3.



(그림 18) 하렘팬츠의 에스닉 패션, 한국일보, 94. 5. 1.

셋째, 현대 패션에 강한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에콜로지(Ecology)패션의 배경 역시 에시드 록과 맥을 함께 하고 있다. 히피들의 오염된 현재의 환경을 거부하고 자연으로의 동화를 꾀하는 소박한 소망이 표현된 에콜로지 패션은 자연스런 멋을 부각시키기 위해 천연섬유를 선택하고 특히 천연염료로 염색된 타이다이(tie-dye) 소재를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90년대 큰 패션 조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에콜로지 패션은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급속히 번져 (그림 19)과 같이 새로운 것을 거부하고 낡은 것을 선호하는 이른바 「중고주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37] 워싱처리한 빛바란 진, 갈색톤의 셔츠, 마, 면 등 천연소재가 섞인 진, 구겨지거나 후줄근한 느낌을 주는 반팔 티셔츠 등 환경보호가 전 지구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패션에도 재활용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미 서구 청소년들 사이에 1989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청바지 찢어입기[38]의 중고패션이 요즘 거리 곳곳의 청소년들에게 유행하고 있다(그림 20). 이러한 경향은 패션계에 뉴히풍이라는 이름으로 강하게 부각되면서 외복외에도 꾸밈없는 자연스런 형태와 색깔을 표현해 주는 화장술[39]까지

(그림 19) 중고패션상가, 중앙일보, 94. 7. 7

(그림 20) 80년대 후반, 서구청소년 사이에 유행한 중고주의, 1990, Fashion of a decade the 1980s

37) "중고패션바람", 「중앙일보」, 1994년 7월 7일, p.29
38) Vicky Carnegy, Fashion of a Decade the 1980s, London : B.T.Batsford, 1990, p.26
39) "뉴히피 make-up", 「Fashion Today」, 1993년 10월, p.103

도 유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넷째, 남성 히피 록커의 긴머리, 남·녀 히피가 함께 착용했던 블루진으로부터 시작된 유니섹스 모드는 1970년대 이후, 여장한 보이죠지나 양성적 차림의 데이비드 보위와 같은 뉴웨이브(New Wave) 록커들이 등장함에 따라 앤드로 지너스 등으로 다양하게 변천하게 되면서 新유니섹스의 개념을 낳고 있다. 신유니섹스는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새로운 유니섹스 패션으로 80년대 이후 오히려 남성이 여성에 가까와지고 있는 경향을 의미한다. 남에게 아름답게 꾸미는 남자, 액세서리, 화장을 하는 남자등 신유니섹스의 새로운 모양은 남성·여성을 떠나 인간으로서의 새로운 모양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신유니섹스 패션은 남자와 여자가 각각 갖고 있는 특성을 부정하지 않고 그 순수한 아름다움과 감각을 자유롭게 크로스 오버시키는 뉴웨이브적 센스로서 요즘 가족들이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착용하는 Family fashion의 개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섯째, 펑크록의 사상과 복식은 현대의 오뜨꾸띄르 뿐만 아니라 스트리트 패션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펑크 록이 패션에 수용된 이미지로 신장식주의 경향의 펑크풍 패션을 들 수 있다(그림 22). 그 표현 방식을 살펴보면 기존의 복식관념에서 벗어나 의도적으로 복식을 변형하거나 파괴하는 데떼스떼(Detester)적인 뉴로틱 패션,[40] 펑크의 히스테리를 유모러스한 해학적 감각으로 대체시킨 키치감각, 의복 안밖의 도치, 속옷의 겉옷화 등 의복의 착용법에 있어 일상성의 탈피, 부분 염색된 펑크풍 헤어스타일이나 펑크 감각의 액세서리를 통한 장식의 개성화 등 펑크감각의 신장식주의는 강한 감각성을 추구하는 현대 패션에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 펑크록의 미래지향적 사운드와 현대문명적 이미지가 복합된 하이테크 이미지로써 사이버 펑크 스타일의 등장을 들 수 있다. 사회 각 분야에 걸친 사이버 컬쳐(Cyber Culture)의 가시화 현상은 패션계에 사이버 펑크를 반영한 새로운 유행을 등장시키고 있다. 하이테크와 접목된 우주적 이미지, 플라스틱, 비닐, 실버 등의 금속성 원단 등 신소재, 네온칼라, 실버칼라, 고광택 칼라 등

(그림 21) 펑크 록커, Sex Pistols의 Sid Vicious, 1978, Getting it on.

(그림 22) 펑크스타일의 청소년, 행복이 가득한 집, 95. 5.

40) 혐악, 증오를 뜻하는 악취미 지향의 디자인 운동으로 복식에 있어서는 혐오스런 표현방식을 말한다.

첨단 테크놀로지를 느끼게 하는 요소들이 최근 패션에 반영되고 있는 사이버 펑크 스타일인 것이다.

4. '힙합 레게' 이미지 (Hip-Hop Reggae Image)

1960년대 중엽 서인도제도에 위치한 섬나라 자메이카의 음악으로 그곳 토속음악인 '스카(Ska)'가 50년대 미국의 흑인 음악인 리듬 앤 블루스의 영향을 받아 스타일이 확립된 레게[41]는 80년대 말 랩과 만나 '힙합 레게'를 잉태시켰으며 그것은 90년대 신 레게음악으로 자리를 굳혔다. 이러한 90년대에 가장 활기를 띄고 있는 힙합 레게 이미지는 패션에 프리미티브(Primitive)경향의 자연주의,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일상복화, 그리고 듀얼리즘(Dualism)의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흑인음악의 붐을 배경으로 하는 프리미티브(Primitive)경향의 자연주의는 패션에 아프리카 원주민의 민속복이나 장식등을 응용한 원시적 요소와 함께 과감한 노출을 통한 자연주의를 등장시켰다. 검은색 피부의 선호, 레드, 그린, 골드 등 에스닉 칼라의 콤비, 두건, 라스타파리안 헤어스타일 등은 과감한 노출을 통한 패션의 자연주의와 함께 젊은이들 사이에 주류적 경향을 띄고 있다.

둘째, 액티브 스포츠 웨어의 일상복화이다. 힙합 레게가 모두 거리의 흑인들을 배경으로 탄생한 문화인 만큼 스포츠가 곧 생활인 하위문화 청소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또한 흑인 랩가수 M.C해머가 스포츠팀의 커다란 로고와 백넘버가 달린 옷을 입고 뮤직비디오에 등장한 것이 헐렁한 반바지, 하이탑 운동화와 함께 청소년들의 스트리트 패션으로 확산되었으며, 특히 94年 디자이너 도나카란이 자신의 브랜드 'DKNY'에서 과감한 스포츠룩을 선보여[42] 이러한 분위기는

(그림 23) 힙합스타일
행복이 가득한 집, 94. 9.

전세계적으로 스포츠룩을 유행시키고 있다. 이미 거리에 나와있고 청소년들의 복식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그림 23).

셋째, 이러한 무드는 신세대 패션에 예측을 불허하는 듀얼리즘(Dualism)적 패션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양면성의 공존으로 표현할 수 있는 듀얼리즘은 유행의 한가지 스타일을 추구하기 보다는 여러가지 경향을 합성하여 뉴에이지에 알맞는 새로운 패션을 연출하는 것이다. T.P.O의 개념이 무시되고 어떤 정형화된 옷의 개념자체를 거부하는 양상, 장식과 과장을 배제한 엄격한 미니멀리즘(Minimalism)과 男·女 성의 구분의 무의미함, 또한 소재에 있어서도 광택과 무광택이 동시에 등장하고 나이와 경계가 없어지는 바운드리스 소재의 등장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즉 뉴에이지의 청소년들은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의 공존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90년대 들어와서 청소년들은 서구 대중문화의 무조건적인 모방에서 벗어나 그

41) "Raggae", 「음악동아」 1994년 12월, p.108
42) 「Fashion Today」, 1994년 6월, p.97

시대의 유행에 자신의 개성과 센스를 결합하는 주체적 패션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이동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청소년 패션의 고질적인 '메시지 부재'를 탈피하는데 얼마만큼의 의미있는 단서를 제공해 줄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 서구의 레게음악, 랩, 펑크음악 모두 거리의 청소년 하위문화에 의해 그들의 저항적 가치를 메시지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며 그것은 의복에 있어서도 자생적인 하위문화 스타일로 나타났다. 그런후에 지배적인 매스미디어와 문화사업은 그들의 다양한 하위문화의 요소들을 재빨리 상품화하여 대중 청소년과 하이패션에까지 확산시

〈표 2〉 90년대 패션에 수용된 대중음악적 경향

구 분	음악적 발생기원	패션트렌드에 반영된 감각별 분류	복 식 특 징
재즈 이미지	Jazz 19C말~20C초 발생, 흑인들의 민속음악에서 미국 대중음악으로, 현재는 세계적인 현대음악으로 발전	노스탈지어 재즈스타일의 댄디즘 인도풍의 에스닉	보디스의 상부가 꼭 맞게 하고 허리를 조이고 단은 부풀린 실루엣 매니쉬한 재킷과 베스트 밀리터리풍 수트, 복고풍 재즈 룩.
웨스턴 컨트리 이미지	카우보이 송(Cowboy Song)의 웨스턴 음악에서 유래	웨스턴 컨트리	웨스턴 셔츠(Y셔 모양의 요크장식) 웨스턴 재킷(스웨이드 소재 fringe) 웨스턴 베스트(가죽소재) 웨스턴 부츠(장단지 길이의 컷팅 장식) 프린지 장식, 반다나 스카프 등
록 이미지	Acid Rock 히피들의 음악으로 1967년경 발생 환각상태에서 현실의 이탈을 추구, 야성적, 성해방주장, 자연으로의 복귀주장	히피풍 이국풍의 에스닉 에콜로지 신 유니섹스	그런지 룩, 워킹부츠, 색(sack) 하렘팬츠, 텐트드레스, 패치웍 스커트, 네루자켓, 꽃무늬 히피셔츠, 새쉬 천연섬유 선호, 중고주의의 재활용 의복, 자연스런 뉴히피풍 메이크업. 남녀의 특성을 자유롭게 크로스 오버시키는 뉴웨이브적 센스.
미지	Runk Rock. 1970년대 초반에 형성. 기존의 사회체제나 음악형성을 거부하는 무제한성의 원칙으로 소란과 절규표현	펑크풍 사이버 펑크	의도적 복식의 파괴 등 뉴로틱 패션 펑크의 히스테리컬 익살과 유머를 통해 표현하는 키치, 펑크악세서리, 펑크 헤어스타일, 의복의 도치 등 신장식주의 우주적 이미지, 플래스틱 비닐, 실버등의 금속성 원단 등 신소재, 네모칼라, 실버 칼라, 고광택 칼라등 첨단 테크놀로지적 요소
합합, 레게 이미지	Rap, Reggae 힙합(hip-hop)은 80년대 초반 랩 뮤직을 즐기던 뉴욕의 브롱크스의 흑인 청소년들의 거리문화. 1960년대 중엽 자메이카에서 발생한 레게 음악이 80년대말 랩 뮤직과 제휴함에 따라 힙합 레게 탄생	프리미티브 액티브 듀얼리즘	과감한 노출을 통한 패션의 자연주의, 검은 피부 선호(선탠유행), 두건, 라스타파리안 헤어스타일. 스포츠웨어의 일상복화 예측을 불허하는 신세대 패션 경향. T.P.O의 개념 무시, 정형화된 옷의 개념 거부, 성(性)의 구분의 무의미함, 장식의 미니멀리즘, 바운드리스 소재의 등장

키게 된다. 패션의 상향 전파 이론(Tricle-up theory)의 전형적인 양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하위문화집단의 자생적 하위문화로서 저항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음악문화가 존재해 왔으나 특정한 환경하에 처해있는 한국의 청소년들은 자생적 하위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외국의 문화를 수입해서 상품화하거나 국내 유명 스타일(그러나 역시 외국의 유행스타일의 복제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을 미리 상품화시킨 지배적인 문화시장의 관행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한국 청소년 하위문화 패션은 서구의 스타일 또는, 스타나 업체에서 제안한 스타일에 의해 하향 전파(Tricle-down)되는, 서구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V. 결 론

청소년들의 하위문화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경제적 모순에 대한 주술적 해결의 방식으로써 그 대표적인 상징적 표상행위가 대중음악과 패션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가치와 청소년들이 그들 자신을 기호화 하기 위해 사용하는 음악 또는 의복의 형태 사이는 상동성(homoiogy)의 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0년대부터 90년대에 이르기까지 대중음악을 통한 서구지향적 취향이 전세계적 대중문화의 동질화 현상과 맞물려 커다란 흐름을 형성해 왔다. 70년대, 국내 청년문화는 서구로 부터 온 대중적인 유행물결을 타고 획일적인 음악과 패션을 추종하였다. 즉, 모방패션으로서 패션의 확산은 위로부터 하향이동 되었다. 또한 80년대 칼라 TV의 보급은 서구문화에 대한 스타일의 복제 및 동시추구현상을 더욱 가속화 하였고 80년대 중반이후 다양화 및 차별화를 추구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주체성을 갖지 못한 이율배반적인 개성과 자유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90년대에 이르러 서태지와 아이들이 청소년들의 우상으로 떠오르고 빠르고 비트가 강한 랩, 레게 댄스계열의 대중음악이 청소년들을 사로잡으면서 이런 음악을 중심으로 일종의 청소년 하위문화적 정체성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청소년들은 서구의 하위문화 청소년들과는 다른 패션의 형성 및 확산 과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의 경우, 청소년 하위문화의 차원에서 상징적 저항의 수단으로서 스스로 개발된 문화적 스타일이 문화 사업에 의해 재빨리 상품화 되어 하이패션 또는 엘리트의 지배적 문화로 통합되는 상향 전파(Tricle-down)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러모로 삶의 조건이 다른 한국의 청소년 문화는 스스로 스타일을 개발하지 못하고 외국의 문화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지배적인 문화시장을 통해 획일적으로 소비하도록 현혹당하고 있는 것이다. 즉, 패션 확산에 있어 하향 전파(Tricle-down)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하위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90년대 대중음악의 장르는 현대 음악화된 퓨전 재즈, 리바이벌 양상을 띄고 있는 컨트리 음악, 사이키델릭 음악과 펑크 록을 동시에 보여주는 얼터너티브 록, 복고의 열기로 비롯된 랩, 레게 음악 등으로, 이러한 대중음악적 이미지는 현대 패션에 반영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다. 90년대 국내패션에 수용된 대중음악적 경향을 재즈 이미지, 컨트리 & 웨스턴 이미지, 록 이미지, 힙합 레게 이미지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중음악의 재즈 이미지가 90년대 패션에 수용된 경향으로는 복고풍 댄디스타일(매니쉬룩, 밀리터리룩, 조끼 및 남성복 소재의 재즈 룩)의 부활, 인도풍 에스닉 감각의 도입(소재, 문양 등)을 들 수 있다.

2. 컨드리 & 웨스턴 이미지는 오랜동안 패션테마로 등장하고 있으며 주로 고유의 아이템(웨스턴 셔츠, 웨스턴 재킷, 웨스턴 타이, 웨스턴 부츠, 카우보이 햇, 반다나 스카프 등)과 디테일이나 악세서리(프린지), 소재(진, 가죽, 세무)등을 통한 코

디네이션 아이템으로 즐겨 사용되고 있다.

3. 록 이미지는 에시드 록의 히피풍 패션, 에스닉 패션, 에콜로지 패션, 新 유니섹스 패션과 펑크록의 펑크풍 패션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4. 힙합 레게 이미지는 프리미티브 경향의 자연주의, 액티브 스포츠 웨어의 일상복화, 예측을 불허하는 듀얼리즘적 패션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현대 패션에 있어서 대중음악적 영향은 패션 확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왔음을 알 수 있다.

90년대 이후 현대 청소년들의 패션은 점차 자신의 주체적 판단에 의해 스스로의 패션을 창조해 나가는 이른바 「패션 데모크라시」의 형성으로 이동해가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그러한 우리 청소년들의 소비를 리드하고 있는 패션업계들 역시 외국문화를 받아들일 때 그 외형 뿐만 아니라 노래말 밑바닥에 깔린 의식을 함께 수용하고 거기에 우리식의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외형에 끌리는 10대의 감각에만 어필할 뿐 청소년 복식문화로써 영속성과 영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명구(1993), "대중 소비문화주의 문화와 청소년문화", 「방송문화연구 92」, 서울 : KBS방송연구원
- 김경훈 編著(1994), 「한국인 트렌드」, 서울 : 실록출판사
- 김영준(1994), 「한국 가요사 이야기」, 서울 : 아름출판사
- 김창남(1994), "하위문화집단의 대중문화 실천에 대한 일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 남재일(1994), "신세대, 그 유령의 실체는?", 「국제화 시대의 청소년 : 신세대의 특성과 역할」, 5월 청소년의 달 기념 토론회 자료집,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노재명(1994), 「신중현과 아름다운 강산」, 새길출판사.
- 박윤우(1984), 「해방후 대중가요의 사회사」
- 삼성연구소(1994), 「95/96 Autumm & Winter Fashion Trend」.
- 서동진(1993), 「Rock－젊음의 반란」, 서울 : 새길
- 선성원(1993), 「8군쇼에서 랩까지」, 서울 : 아름출판사
- 송원길(1989), 「컨트리 음악의 역사」, 세광음악출판사.
- 세광음악출판사(1987), 「파퓰러 음악용어 대사전」
- 엄소희(1988), "Punk Fashion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 이영미(1984), 「노래운동론」, 서울 : 공동체
- 이용교(1992), "사회집단과 청소년문화", 「청소년 문화론」, 서울 : 한국 청소년연구원
- 이용숙(1992), "한국 중등학교 문화의 특성", 「한국 청소년 연구」, 제3권 제2호, 서울 : 한국청소년연구원
- 이장직(1990), 「대중화 시대의 음악」, 서울 : 삼호출판사
- 「동아일보」, 1971. 10. 1., 1984. 10. 10.
- 「뮤직라이프」, 1983. 3., 1984. 2., 1992. 3., 1992. 9.
- 「월간 멋」, 1986. 12.
- 「음악동아」, 1994. 12.
- 「조선일보」, 1979. 2. 25., 1982. 4. 10., 1984. 2. 5., 1994. 7. 7.
- 「중앙일보」, 1992. 8. 15., 1994. 8. 6.
- 「Fashion Today」, 1993. 10., 1994. 6.
- 「한국일보」, 1993. 8. 16., 1994. 4. 3.
- 「행복이 가득한 집」, 1994. 9., 1995. 5., 1995. 8.
- Carnegy V. (1990) Fashion of a Decade the 1980s, London : B.T.Batsford.
- Chambers, I. (1976), "A strategy for Living", Hall & Jefferson(eds), Resistance

Through Rituals, CCCs, Univ. of Birmingham.
- Douglas A. Russell(1983), Costume History and style, New Jersey : Englewood Cliffs & Co, Inc.
- Dorothy Behling(1986), "Fashion Change and Demographies : A Model", CTRJ, V4(1)
-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 George B. Sproles(1995), Chamging Appearances, New York : Fairchild Publication.
- Grossberg, 1.(1992), "Rock and Roll in Search of an Audience", Lull, (2nded), Popular Music and Communication, SAGE.
- Hebdige, d.(1979), Subculture : The Meaning of style, London : Methuen and Co.
- Lynne Richards(1988), "The appearance of Youthful Subcuture : A Theoretical Perspective on Deviance", CTRJ. V6 #3.
- Mablen Jnes, Ellen Colon-luho(1987), Getting it on, New York : Abbeville.
- Simon Frith(1995), 「The Sociology of Rock」, 권영성, 김공수 (역), 「사운드의 힘」, 서울 : 한나래

ABSTRACT

A Study on the Popular music and Fashion of youthhful subculture

Um So He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Wonju Junior Coll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mology between the Popular music and Fashion of youthful subculture and how the image of popular music have influenced on the 90's fashion.

As the result, Korean youthful subculture analized to be different from western youthful subculture. In western countries, the style of youthful subculture groups spread to tricle up as developed themselves but represented tricle down phenomenon in Korea. Because life condition of Korean Youthful was different from westerns in everything.

The Image of popular music have an influenced on the 90's fashion, it is to be classified into the Jazz image, the Country & Western image, the Rock image, and Hip-Hop, Ragge image.

1. The jazz image from Jazz music has come back dandism of the nostalgia mood and introduce ethmic sense into fashion.

2. The Country & Western image is reflected in fashion of accessories details, materials and Coordination item.

3. The rock image from Acid Rock and Punk Rock effected the advent of hippie mood fashion, ethnic, ecology, new unisex fashion and Punk fashion trend.

4. The hip-hop, raggae image from Rap and Raggae music showed on fashion of primitive mood's naturism, Sports wears' generalization and dualism.

After the 90th, youthful fashion of new generation may be infered constantly on the move toward 「Fashion democracy」 formation.